

아시아의 화교 · 화인의 경제권

◎화교와 화인의 차이

2003년에 발표된 통계에 의하면 전세계의 인구는 약 62억이며, 그 중 중국의 인구는 약 13억으로 세계인구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고, 인도의 인구는 10억 6천이다. 아시아의 인구는 이들을 포함하여 38억으로 세계 인구의 60%나 된다. 아시아의 경제발전은 20세기 후반부터 세계인의 주목을 끌기 시작하였고, 21세기는 “아세아의 세기”라고도 예견하는 주장도 있다.

아시아 인구의 약 1/3을 점하고 있는 중국이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면서, 바야흐로 21세기는 중국의 세기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중국인은 중국 이외의 지역에도 6천여만명이 넘는 화교(華僑)와 화인(華人)이 살고 있다. 보통 이들을 모두 화교라고도 하는데, 화교와 화인은 법률적으로는 전혀 다른 존재이다.

“화교”는 지금으로부터 600여년전 명(明)나라 시절부터 아프리카 대륙의 동해안까지 교역함으로써 상당수의 중국인이 해외에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외국에 건너간 중국인 제1세대는 중국적(中國籍)을 갖고 있었으며, 대대로 외국에서 살면서도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중국 국적을 갖고 있거나 국적이 없는 상태의 중국인을 “화교”라고 칭한다.

“화인”은 해외에서 살면서, 살고 있는 나라의 국적을 갖고 있는 중국인을 말한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거주국의 국적을 갖고 있어 중국과는 관계가 없다. 그러므로 역사상, 문화상, 혈연상의 관계만 있지 국적은 어디까지나 거주국으로 되어 있다.

역사적으로는, 9세기 남송(南宋)시대부터 국외로 이주한 중국인이 있었다고 한다. 해외로 가장 많이 이주한 시기는 1842년에 끝난 아편전쟁에서 패한 청

(淸)나라가 홍콩을 영국의 직할 조차지(租借地)로 내주고 구미 열강에 의해 강제로 개국한 후였다.

1949년에 모택동이 새로운 공화국을 수립하였으며, 대만으로 패퇴한 국민당이 중국 정부로부터 분리되면서 해외에 살고 있던 중국인들이 화교나 화인 중 택일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신중국이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와 국교를 수립하게 되자, 화교와 화인의 신분이 명확히 구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 화교와 화인의 인구

세계에 흐트러져 있는 화교나 화인에 대한 정확한 인구 통계는 없으나, 화교는 약 400만명으로 추정된다. 화인은, 아시아 각국에 거주하는 중화민족의 자손들인 “화예(華裔)”로서 약 2,800만명이라고 하고, 대만 중국계가 약 2,000만명, 홍콩, 마카오의 중국계가 약 650만명, 기타 세계의 여러 지역에 거주하는 중국계가 약 500만명으로, 대만계를 비롯한 모든 화교, 화인을 망라한 인구는 6,350만명이며, 이들이 온 세계에 널리 퍼져 뿌리를 내리며 활약하고 있다.

대만, 홍콩, 마카오를 제외한 아시아 각국의 화교·화인의 분포상황 및 경제력을 보면, 인도네시아에는 약 600만명이 인구비 3%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75%의 경제지배력을 갖고 있다. 태국에는 약 500만명이 거주하면서 10%의 인구비에, 60%의 경제지배력을 갖고 있다. 말레이시아에는 약 470만명이 30%의 인구비에 67%의 경제지배력을 갖고 있으며, 싱가포르에는 약 230만명이 75%의 인구비에 90%의 경제지배력을 갖고 있다. 필리핀에는 100만명, 베트남에는 70만명, 미얀마에는 80만명, 캄보디아에는 30만명의 화교, 화인이 살고 있다. 그리고 그들 나라에서 압도적인 경제지배력을 차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는 객가(客家 : 湖南省, 江西省南部, 廣東省北部출신을 가리킴)계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태국은 조주(潮州)계, 말레이시아는 광둥(廣東)계, 싱가포르와 필리핀은 복건(福建)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에는 약 10만명이 살고 있는 규슈(九州)의 나가사키(長崎)에는 복건계 중화인, 고베(神戸)에는 상하이(上海)계, 요코하마(横浜)에는 대만계 중화인 거리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중화인들이 지연(地緣)이나 혈연(血緣)을 중요시 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이 중화인이 세계적으로는 약 6천만명이 활약하고 있으며, 이들이 거대한 재력과 실권을 장악하고 있어 그들의 총 자산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4천억달러라고도 하고 5천억달러라고도 한다.

◎ 중화인의 해외진출 툴은 “삼도”

중화인들은 해외에 진출할 만한 재력이 없기 때문에 동향사람을 찾아 타향에서 살아갈 수 있는 도구(tool) 또는 무기로 “삼도(三刀)”를 갖고 다닌다. 삼도는 중화요리의 솜씨를 살려주는 식칼, 양복을 재단하여 바느질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가위, 어디를 가도 사람들은 머리를 깎아야 하므로 길가에서도 머리 및 수염이나 잔털을 깎는데 없어서는 안될 면도칼을 말하며, “삼보(三寶)”라고도 한다. 적어도 아무 밑천없이 이들 도구 중 하나만 몸에 지니고 해외에 나가, 기술을 바탕으로 스스로 의식주문제를 해결하고, 그들만이 이겨낼 수 있는 검소한 생활로 저축을 꾸준히 실천하여 그 지방에 뿌리를 내려 경제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오늘날에는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중화요리를 가장 주된 사업으로 하여 경제적인 실력을 확보한 중화인들이 거대한 자본을 갖고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업인들이 등소평(鄧小平)의 개혁 개방 노선

에 따라, 조국 중국에게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오늘의 중국 발전에 기초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일찍이 아일랜드(Ireland)이민의 자손들이 미국에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지위에 있으면서 음으로 양으로 아일랜드에 도움을 주었던 것과 같이, 중화인들도 세계의 각 거주국(居住國)에서 경제면뿐만 아니라 정치면에서도 그들의 조국을 도와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그들의 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중국계 미국인으로 조직된 “100명 위원회”가 있어, 화이트·하우스(White House)에도 중국과 관련된 정책에 관한 한,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시키고 있다고 한다.

◎ 중화인이 중요시하는 “체면”

세계도처에 있는 상당규모의 중화인 거리에는 “장사의 신(神)”으로 모시고 있는 “관제묘(關帝廟)”가 있다. 이 묘는 장사와는 직접 관계가 없는 “관우(關羽)”를 모시고 있는데, 관우는 삼국시대의 인물로서 유비(劉備), 장비(張飛)와 함께 존경받던 무장으로서 중화인들이 장사의 도리로서도 아주 중히 여기는 “신의(信義), 성실(誠實), 신뢰(信賴)”의 상징으로 높이 모시고 있다.

중화인들은 “체면(體面)”을 극히 중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 앞에서 창피를 당하는 일을 죽기보다도 싫어한다”고 한다.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은 아무리 추천하고 칭찬하여도 좀처럼 믿으려 하지 않으며, 그 대신 한번 믿으면 사업에 실패하는 등 상당한 사고가 발생하여도 끝까지 신의를 지키며 지원해 준다”고 정평이 나있다.

중화인이 중히 여기는 또 하나의 체면은 외국에서 아무리 사업에 성공하여 거부가 되어도 조국의 고향에 “금의환향(錦衣還鄉)”하지 못하면 훌륭한

사람으로 존경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고향에 학교나 병원 등을 세우거나 고향을 위하여 기부를 한다고 한다.

중국정부는 한때 재력을 중요시하여 새 중국을 건설하기 위한 자금을 모금하기도 하였었는데, 지금은 인재를 중요시하게 되어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신세대의 중화인을 적극적으로 불러들이고 있다고 한다.

중화인들은 1990년대부터 “세계 화상(華商)대회”를 구상하고, 중국정부나 기업들도 이 대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기획함으로써 글로벌·네트워크(global network)를 만들고 있다. 한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려면 자본도 중요하지만, 자본이상으로 유능한 인재가 중요하므로, 이들 인재를 조국으로 유치하는 현상이 강해지면서, 소위 중국의 “아일랜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